日 고교생도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 시위

교수·학생·유모차 부대 이어 … 시위 전국 확산

도쿄서 5000명 참가 "미래 맘대로 결정 말라"

지난달 연립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법안 반대 시위가 일본 내 각계·각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학생·학자를 비롯한 '유모차 부대'인 주부들까지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나서 법안 반대 시위에 나섰다.

3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생들이 2일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澁谷)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법안에 반대하는 수도권 고교생 그룹 '틴스 소울(T-ns SOWL)'이 주최한 집회에는 대학생과 성인을 포함해 약 5000명(주최측 발표)이 참가했다.

고교생들은 랩 음악에 맞춰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아베 신조로부터 미래를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학생들은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외쳤다.

고교생 집회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 단체 실즈(SEALDs) 주최로 열린 국회 앞 시위 등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이 '우리도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벌이자'며 인터넷을 통해 동참을 호소하면서 성사됐다.

도쿄신문의 취재에 응한 한 고교생 참가자(16)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 3학년생 또는 대학 1학년생에 해당하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진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대학생이 주축이 된 단체 '실즈'(SEALDs)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이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두 모임에 소속된 약 1000명의 학자와 학생은 "함께 법안의 폐안을 이뤄내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을 얕보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26일에는 일본의 평범한 주부들의 모임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일명 집단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 도쿄 시부야(澁谷)와 니가타(新潟), 교토(京都), 후쿠오카(福岡)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각지에서 모인 사람은 1500명이었으며, 참가자들은 "엄마는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쟁의 이유를 만드는 것을 그만두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 반대에 가세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오거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나오기도 했다. 유모차 부대로 불리는 아기 엄마들과 대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나선 데는 자위대의 전쟁을 묵인할 경우 앞으로 징병제가 도입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日 '혐한시위' 규제 법안 국회 심의

법안 제출 2개월여만에

참의원 법무위서 논의

일본에서 '혐한시위' 규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일 시작된다.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철폐법안)'의 발의를 주도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차별철폐법안 심의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시작한다"며 "4일 취지 설명에 이어 6일 3시간 30분간 질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리타 의원은 "인종차별철폐를 의제로 하는 법안 심의는 전후(戰後)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혐한시위 문제에 주목해온 아리타 등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5월 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폐법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연합뉴스

산불 저지 '맞불' 앞 지나는 소방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클리어레이크 시 근처에서 한 소방관이 산불을 저지하기 위해 놓은 맞불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키 화재'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산불의 진화작업에는 소방관 1900명 이상과 헬리콥터 19대, 산불진화용 항공기 4대가 동원됐으며, 이날 현재 주택 24채와 건물 26채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주민 1만2000여명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으며, 산불로 탄 면적은 약 190㎢다. /연합뉴스

中 백두산 호랑이 70마리 인공 번식 성공

하얼빈 동북호림원

중국이 올들어 백두산 호랑이(중국명 둥베이후·東北虎) 새끼 70마리를 인공 번식하는데 성공했다고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3일 전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 소재 세계 최대의 백두산 호랑이 번식·사육 거점인 동북호림원은 "백두산 호랑이의 교배 절정기인 5~6월을 거쳐 현재까지 새끼 70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동북호림원은 새로 태어난 새끼들을 100일간 어미 호랑이와 생활하도록 한 뒤 야외 방사구역으로 이동시켜 야생 적응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동북호림원 측은 올 연말까지 호랑이 번식을 계속 시도해 올해 100마리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난 1986년 설립된 동북호림원은 백두산 호랑이의 '정교하고 능란한 번식' 기법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초기 8마리에 불과하던 호랑이 개체수를 현재 1000여 마리로 늘렸다.

한편 시베리아 호랑이로도 불리는 백두산 호랑이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시베리아에 주로 서식하며 야생에서 전 세계적으로 남은 숫자가 500마리도 채 안 되는 세계 10대 멸종위기동물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北 국방위원장 내달 中 방문하나

노병대회서 중국인민군 치하

베이징 열병식 참석 희망 메시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달 중국 방문 가능성을 제기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중국망(中國網)은 3일 평론기사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노병대회에서 북측 인민의 자유독립과 동방평화를 위해 함께 피를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참전노병들을 높이 치하했다"며 "김 위원장 집권 후 이런 발언은 매우 보기 드문 것이며 갑작스러운 대(對)중국 우호태도는 중국 측에 전하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망은 "내달 3일 항일전쟁 승리기념일에 중국은 베이징에서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거행할 예정이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온 김 위원장의 인민지원군 열사에 대한 치하는 어쩌면 베이징 열병식에 대한 참석 희망의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집권 후 단 한 차례도 중대한 국제활동에 참석한 바 없고 출국한 바도 없다"며 "이번 베이징 열병식에 참석한다면 이는 그의 정치행보에 있어 국제정치무대 데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친구 찾기'에 나서 미국·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시도했으나 결국은 방향을 틀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면서 "이번 중국군 열사에 대한 경의 표시는 양국 관계 개선의 의사표현이자 중국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망은 이어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과 부친인 김정일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년시절 서방국가 유학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은 선대와 다른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북측이 중국을 벤치마킹해 탄력적 경제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美 해병 제1사단장에 한국계 대니얼 유 준장

미군내 한국계 장성 4명

첫 한국계 미국 해병대 장성인 대니얼 유(55·사진) 준장이 미국 해병 제1사단장에 취임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해병대 제1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사단 부사단장이던 유 준장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캠프 펜들턴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지휘권 이양식에서 사단장이던 로렌스 니콜슨 소장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유 준장은 미국 해병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병력이 많은 해병 제1사단의 지휘관으로 2만3000 명의 병력을 휘하에 거느리게 됐다. 유 준장은 애리조나주립대(ASU)를 졸업한 후 1985년 소위로 임관했으며, 2011년에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군 장성 진급자가 됐다.

한편, 미군에 근무 중인 한국계 장성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유 사단장을 포함해 스티븐 커다 미 육군 제9 임무지원 사령부(MSG) 사령관 내정자, 리처드 김 아프간 주둔 합동사령부 임무 지원 사령관, 존 조 육군 의무감실 근무자 등 네 명이며, 계급은 같은 준장이다. /연합뉴스